

2024. 2. 23.(금)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2월 22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경제정책실 뷰티패션산업과

뷰티패션산업과장	권 소 현	02-2133-8761
패션 산업 팀 장	허 선 주	02-2133-8774

사진없음 사진있음 쪽수 : 4쪽

세계가 주목하는 K-패션 밀라노 패션위크서 데뷔무대 갖는다.. 유럽 수출길 열어

<세계 4대 패션위크>

- 9월 '25년 SS패션위크' 참여 국내 유망 패션 브랜드 선발, 쇼룸 입점 등 유럽진출 공식 지원
- 20일(화) '밀라노 패션위크' 개막식 현장서 서울사-이탈리아 국립패션협회 업무협약 체결
- 시, 이탈리아 백화점 등에 K-뷰티·패션 전용관 조성 논의...프리미엄 유통망 확보 총력

- 올해 9월, 세계 4대 패션위크 중 하나인 '25년 S/S 밀라노 패션 위크'에서 서울패션위크를 대표하는 한국 디자이너들의 데뷔 무대가 펼쳐지고, 유럽의 패션 트렌드를 견인하는 이탈리아 밀라노의 쇼룸, 편집샵 등 핵심 유통망을 통한 K-패션 수출길이 열린다.
- '밀라노 패션위크'는 세계 4대 패션위크(파리, 밀라노, 뉴욕, 런던) 중 하나로, 프라다(Prada), 구찌(Gucci), 베르사체(Versace) 등 럭셔리 브랜드부터, 전도유망한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150개 이상이 참여해 60개 이상 패션쇼가 열리는 세계적인 행사이다.
- 서울시는 세계대표 패션도시 '밀라노'를 거점으로 유럽시장을 넘어 글로벌 무대에 K-패션의 가치를 알리고, 국내 패션 디자이너의 본격적인 해외 진출 기반 다지기에 나선다고 밝혔다.

- 전 세계 한류열풍으로 K-브랜드에 대한 호감도는 상승하고 있지만, 패션종주국으로 손꼽히는 유럽 시장에서는 아직 K-패션에 대한 관심에 비해 매출이 아쉬운 상황.
- 이에 서울시는 ‘이탈리아 국립패션협회’는 밀라노 패션위크(2.20~2.26) 개막일인 2월 20일(화), 이탈리아 국립패션협회 본부에서 K-패션 브랜드의 성공적인 유럽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체결식 행사에는 장영민 서울시 창조산업기획관과 카를로 카파사(Carlo Capasa) 이탈리아 국립패션협회(CNMI) 회장 등이 참석하여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후 앞으로 함께 추진할 협력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 이번 협약은 패션의 도시 ‘밀라노’를 거점으로, 유럽 시장을 넘어 전 세계 글로벌 무대에 K-패션의 가치를 알리고 국내 패션 디자이너의 해외 진출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 협약의 주요 내용은 ① 밀라노 패션위크 플랫폼을 활용한 한국 브랜드의 글로벌 마케팅 ② 패션산업의 혁신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지속적 대화 ③ 양도시 패션·뷰티 유관기관과의 교류 협력 증진 등이다.
- 이번 협약으로 바탕으로, 서울시와 이탈리아 국립패션협회는 유럽 시장에 경쟁력 있는 K-패션 브랜드를 선정해 2024년 9월, 2025년 2월 밀라노 패션위크에 성공적으로 데뷔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과정을 지원한다.

- 서울시와 이탈리아 국립패션협회는 함께 밀라노 패션위크의 공식적 무대에 세울 역량 있는 K-패션 브랜드(5개 내외)를 선발 후, 해외 매체 및 큰 손 바이어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밀라노 패션위크 전까지 선발된 브랜드 대상 지속적인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 시는 유럽 패션시장의 중심인 ‘이탈리아 밀라노’를 시작으로, 프리미엄 유통망 확보에 나선다. 앞으로 백화점, 쇼룸, 편집샵 등 이탈리아 프리미엄 유통망에 K-뷰티·패션 전용관을 조성하기 위한 ‘서울시-이탈리아 국립패션협회-유통업체’ 삼자 간 구체적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 시는 2023년 6월 일본 롯테면세점 긴자점에 서울패션위크 전용관을 개관한 데 이어, K-패션의 글로벌 프리미엄 유통망을 다각도로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 장영민 서울시 창조산업기획관은 “이번 협약으로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나, 그 간 코로나19, 비용 등의 문제로 글로벌 무대 진출이 쉽지 않았던 K-패션 유망 브랜드들의 유럽 진출이 속도가 날 것.”이라며, “K-컬처 열풍에 이어, K-패션이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유럽 시장의 유통망을 다각화하고, 우리 디자이너들의 글로벌 네트워킹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 서울시-밀라노 패션산업협회 우호협력(MOU) 체결식 사진

[사진]



장영민 서울시 창조산업기획관과 카를로 카파사((Carlo Capasa) 이탈리아 국립패션협회 회장이 밀라노 패션위크 개막일인 2.20(화) 이탈리아 국립패션협회 밀라노 본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장영민 서울시 창조산업기획관과 카를로 카파사 이탈리아 국립패션협회 회장이 업무협약 후 단체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캐시연주 흥익대 교수, 권소현 서울시 뷰티패션산업과장, 오리에따 펠리짜리 CNMI 컨설턴트, 카를로 카파사 이탈리아 국립패션협회회장, 장영민 서울시 창조산업기획관, 허선주 서울시 패션산업팀장, 파올라 애리오시오 지속가능프로젝트 대표, 키아라 루이시 지속가능프로젝트 매니저, 조바나 부코제 신진디자이너 프로젝트 매니저 순이다.